

# 91세 할머니의 그림여행



**일곡도서관 김순녀 할머니 전시회**

4년전부터 책 빌려 읽고 그림 그려  
7~31일 동화책 삽화·그림일기 선포

“초등학교때 못 이룬 꿈 이제야 이뤄  
내 그림 누나가 봐주는 것만으로 감사”

91세 김순녀 할머니는 광주 일곡도서관 어린이실 단골 손님이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건 탐정소설. “탐정이 범인을 잡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기 시작하면 밤 새서 읽는다니까요.” 추리 소설 매력에 빠진 할머니는 탐정을 따라 사건을 풀어가는 게 정말 즐겁다고 했다. 그런데 할머니는 책만 보는 게 아니다. 책에 나온 삽화를 자신의 ‘소중한’ 스케치 북에 그리는 게 또 다른 일상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면 꼼꼼히 읽고 마음에 드는 삽화를 골라 그림을 그린다. 책 그림 그대로 그리기도 하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스케치북이 4년여만에 30여권, 작품 수는 500여장에 달한다.

김 할머니가 난생 처음 ‘전시회’를 갖게 됐다. 7일부터 31일까지 일곡도서관 로비와 어린이실에서 열리는 ‘91세 김순녀 할머니의 그림여행’을 통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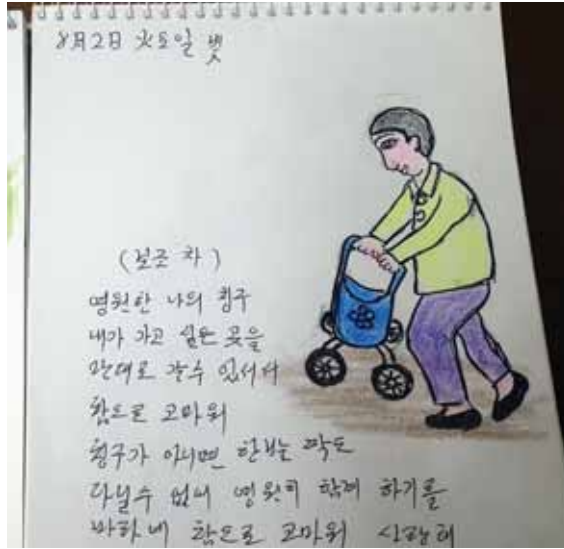
할머니 ‘스케치북’을 발견한 눈 밝은 이가 있었다. 올 1월부터 일곡도서관에 근무하게 된 이춘숙씨다.

“항상 방문하면 2시간 넘게 머물며 세심하게 책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을 걸었더니 책을 골라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책 내용과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 생각도 나서 뭐 도와 드릴 것 없냐 여쭙는데 ‘내가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데 스케치북을 가져올 테니 좀 봐주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에게 어느날 사위가 물었다. “어머님, 지금까지 사시면서 평생 뭘 하고 싶으셨어요? 제일 후회되는 게 뭐가요?”

할머니는 중학교에 가지 못한 것이 제일 마음 아프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아쉽다고 했다. 사위가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사다줬고 곧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물 등을 그렸다. 이후 가족들 모습도 스케치북에 옮겨고 그러다 본격적으로 동화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플란다스의 개’, ‘콩쥐 팥쥐’ 등 수십권을 읽고 그렸다.

“보통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끝나고 나면 내 그림이 항상 교실 뒷 벽에 붙어있었어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었는데 살다보니 그럴 시간이 없었죠. 책 고르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림이 예쁜 것, 내용이 재미있는 것을 골라 그림을 그리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전시를 할 줄은 몰랐지요. 다른 건 없어요. 내 그림을 누가 봐주는 거, 그것만



오로도 정말 감사해요. 기분도 정말 좋구요. 죽을 때까지 오래 오래 그리고 싶어요.”

지난해부터는 손녀의 권유로 그림 일기도 쓰기 시작했다. 형형색색 그림을 그리고 그날의 느낌을 적어나갔다. 비록 맞춤법은 틀렸지만, 글에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담겼다. ‘행복을 발표하라고 했네. 나에게 제일 큰 행복은 딸을 다섯 낳고 아들을 낳았 슬때네. 그대가 가장 질겨왔네’. 아기자기한 꽃수레 그림과 함께 실린 ‘행복을 실은 꽃수레’라는 글이다.

할머니는 운암도서관에서 진행중인 ‘빨강머리 앤’에게 건네는 말’ 행사에도 참여해 ‘빨강 머리 앤’ 대형 팝업북에 들어갈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번 일곡 도서관 전시에서는 스케치북 30권과 그림 일기 6권을 만날 수 있다.

7일 오후 5시에는 간단한 행사도 열린다. 할머니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일곡 도서관 시낭송 동아리 회원중 60세 이상 회원들이 김 할머니 글을 낭송한다. 또 73세 김형만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글을 캘리그라피로 써 전시한다.

전시를 기획한 이춘숙씨는 “나이가 드셨어도 꿈을 잃지 않았고, 그 꿈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꿈은 꾸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하게 됐다”며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할머니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410-6898. /글·사진=김미희기자 mekim@kwangju.co.kr



김순녀 할머니

## 도예가 백산 김정옥 초대전

무형문화재 도예명장...광주 신세계갤러리 21일까지



정호다완

광주 신세계갤러리가 우리나라 대표 도예가 백산 김정옥 작가를 초대해 전통 도자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오는 21일까지 ‘無汗不作(무한부작) 백산 김정옥 도자전’을 연다.

김 작가는 경북 문경에서 전통적인 발 물레와 망명이 가마를 사용하는 조선 도자의 맥을 7대째 이어오고 있다. 1991년 도자부분 최초 도예명장에 선정되고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에 지정되며 이름을 알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땀 없이 이루지 못한다’는 무한부작 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정호다완(井戶茶碗), 달항아리 70여점과 기타 대표작 30여점을 출품한다.

1994년 작 ‘달항아리’는 등그렁고 티끌하나 없는 외관이 인상적이다. 모든 과정을 손과 발로 해내며 정교함보다는 우직함이 먼저 느껴지는 작품이다. 또 담방다완, 도야도다완, 분청철화소기리 문다완, 정호다완 등 다양한 찻잔도 선보인다.

김씨는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보라문화훈장(2016), 제6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2006),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2005), 대통령 표창(2000) 등을 받았다. 일본 79대 총리 호소가와 모리히로에게 청화백자 도자기법 전수하기도 했으며 저서 ‘흙과 함께한 나의 세월 도선불이 陶神不二’를 출간했다. 문의 062-360-163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마린스쿨’ 운영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4~11월 중고생 대상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마린스쿨’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무료 운영한다.

‘마린스쿨’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해양문화유산 교육·홍보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중학생 대상 ‘꿈틀꿈틀 마린스쿨’과 고등학생 대상 ‘하이틴 마린스쿨’ 두 종류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에는 수중고고학자, 문화재 보존과학자, 전통선박공학자, 해양역사학자, 해양민속학자, 전시·교육 학예연구사 등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는 강의와 현장체험 학습(수중탐사선 승선·전통 배 항해)을 통해 생동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학기 마린스쿨’은 상반기(4월13일~5월19일)와 하반기(10월18일~11월29일)로 나눠 매주 목요일 총 8회 운영한다. ‘하이틴 마린스쿨’은 7월19일부터 8월16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5시) 열린다.

한편, 연구소는 중·고등학생 대상 ‘천연기념물과 함께하는 청소년 멘토링’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61-270-2050. /김용희기자 kimyh@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World Sculpture Center Museum (구, 카톨릭센터 뒤 광명전 18)

☎ (062) 222-0072, 226-580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